



윌블던 챔피언십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초로 남녀 단식 결승전에서 백금(플라티넘: platinum) 코인을 사용해 코인 토스를 진행한다. 세계백금투자협회(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 WPIC)가 윌블던 측에 주화를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주화는 엘리자베스 2세의 재위 기간 70년을 상징하기 위해 순도 95%의 백금 70g으로 주조되었으며,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70주년과 처치로드에 위치한 올잉글랜드클럽(All England Club)의 윌블던 센터코트 10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디자인이다.

주화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즉위 70주년 공식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 봉사와 인내, 그리고 강함을 주제로 삼았으며 윈저 왕가의 문장인 떡갈나무 잎과 엘리자베스 2세가 21번째 생일인 1947년 4월 21일에 남긴 연설에서 인용한 "길든 짧든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문구도 각인되어 있다.

뒷면에는 윌블던 라운델(Wimbledon Roundel) 문양과 센터코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센터코트의 선수 출입문 위에 쓰여 있는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시구 "승리와 좌절을 만나고도 두 가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도 함께 새겨져 있다.

플라티넘 챔피언십

엘리자베스 2세 즉위 70주년,
윌블던 센터코트 100주년 맞아
윌블던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백금 코인 사용 예정

맞춤 제작 전문 보석상인 에어룸 런던(Heirloom London)과 윌블던이 협력해 디자인했으며, 실물 주화는 에어룸 런던이 최신 기술과 전통적인 수공 조각 기술을 동원해 영국 내에서 주조할 예정이다.



귀중한 백금

동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다. Wimbleton 챔피언십은 전통적으로 남녀 단식 결승 직전에 코인 토스를 시행한다.

올잉글랜드클럽의 자선단체 Wimbleton 파운데이션(Wimbledon Foundation)은 관례대로 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아 이번 대회에서 동전을 던질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 둘을 뽑을 예정이다.

백금은 수많은 문화에서 기념을 위해 선택하는 귀금속이며, 70주년과는 특히 연이 깊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에 사용되면서 재활용 에너지원에 기반을 둔 글로벌 수소 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주요 금속이기도 하다. 수소는 지속 가능한 주류 에너지로 자리잡을 준비를 갖추고 탈탄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Contacts:

Brendan Clifford, Institutional Distribution, bclifford@platinuminvestment.com

Trevor Raymond, Research, traymond@platinuminvestment.com

Edward Sterck, Research, esterck@platinuminvestment.com

Vicki Barker, Investor Communications, vbarker@platinuminvestment.com



Disclaimer: The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은 어떤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투자 관련 조언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증권 혹은 금융 수단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된 이미지는 오직 참고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PIC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latinuminvestment.com>